

#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 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Social Self and Body Image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ocused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세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임 경 복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e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yung Bock L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elf and body image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data were collected vi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419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Jecheon and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 regression and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Body imag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emotional, cognitive, behavioral body image and interest in weight. 2. There existed correlation between social self and body image. According to gender, there exis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elf,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3. College students classified into two groups- high and low social self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of social self. Two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4. In male and female groups, social self and body image influenced to the variou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The most importan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ich was affected by social self and body image was diet.

주제어(Key Words) : 사회적 자아(social self), 신체 이미지(body image), 외모 관리 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 I. 서론

최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어휘가 등장할 정도로 외적, 물질적 측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얼짱, 몸짱하는 어휘들은 물론이고 루키즘(Safire, 2000)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외모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데, Kaiser(1990, p. 146)는 단적으로 외모관리를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였다. 특히 류은정과 김영희(2007)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외모관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회성 추구임을 통해 사회활동에 외모가 중요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앞두고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면접 전 의복을 비롯한 자기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외모 관리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때 자신을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외모관리 행동도 차이가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외모관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신체적 매력 또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Richards, Boxer, Peter, & Abrecht, 1990)고 하며, 이렇게 외적 기준에 의거하여 개인이 가진 외모에 대한 내적이고 주관적 관심을 신체이미지라 부른다(Cash & Pruzinsky, 1990, p. 51). 자기개념 형성과 표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성연신, 1997)인 신체이미지는 다양한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외모관리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신체이미지가 물질적 자아에 대한 주관적 견해라 할 때 신체와 개인의 정체감 사이에는 독특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즉 물질적 자아가 자아개념의 중심을 이루는 것(Cash & Pruzinsky, 1990, p. 52)이라면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 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고(Dworkin & Kerr, 1987), 신체만족도는 자아만족도와 연결된다(Secord & Jourard, 195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는 서로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김아날리아, 이수경과 고애란(2006)은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성인이 된 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윤진, 1993에서 재인용)고 하였는데 결국 신체이미지는 자신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활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자아개념을 완성시켜가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아와 그 구성개념인 신

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Hurlock(1973, p. 197)은 외모가 청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며 동료 그룹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하고 의복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복을 포함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 분위기가 외모에 많은 의미를 두는 현 시점에 청년층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외모관리 행동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참여도와 의미를 확인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자아

자아개념은 태어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장하는 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데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 및 느낌인 동시에 모든 행동과 조절을 지배하는 심리적 과정의 집합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Hall & Lindzey, 1970, p. 576). 일단 형성된 자아개념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아를 평가하거나 존중감을 유지, 손상시키는데 관여한다(윤경빈, 유대순, 2006). 정원식(1968)은 다양한 환경에서 느끼는 자아의 구성요소로 외적 자아 준거체계를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자아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를 진술하는 것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가 원하는 외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아름답지 않은 외모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신효정, 2002) 사람들은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이현옥, 구양숙, 2006) 외모관리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아가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아 중 사회적 자아는 신체 이미지나 외모관리와 연관성을 가질 것이며 대인관계 시 상호작용에서 유리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근 고 등학생의 교복만족도를 연구한 이상희, 김현식과 손원교

(1997)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으면 외모관심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강승희와 이명희(1993)는 성인남자의 의복구매 동기와 자아개념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아가 높은 사람이 의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류은정과 김영희(2008)는 남대대학생이 외모관리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려는 동기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체중,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의 생김새와 의복,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과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조선명, 고애란, 2001). 신체이미지는 자기개념 형성과 표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이며, 단순한 상이 아닌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성연신, 1997). 강혜원(1995, p. 251)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그에 연관된 느낌과 태도인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의 근본적 핵심일 뿐 아니라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여 자아개념의 구성요소임을 언급하였고, 이윤정(200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외모 만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 만족 시 높은 자아존중감이 있다고 하여서 자아개념의 일부인 자아존중감이 신체이미지와 연관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전제이므로 구성 요인에 대해 연구자 별 차이가 있다. Cash(1990, p. 341)는 신체이미지가 다차원적이고 개념 구조에 있어 주관적이며, 태도적 부분은 감정, 인지, 행동 측면으로 구성되고 신체 이미지 변화 시 감정적 신체변화와 더불어 자기 수용적이고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 시킨다고 하여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Thompson(1990, pp. 125-130)은 신체이미지의 형성과정을 신체이미지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부분인 지각적 부분, 만족, 관심, 인식, 불안과 같은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관적 부분, 신체변형이나 섭식행동을 포함하는 행동적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주관적 느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은 물론이고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선명과 고애란(2001)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 차원간의 관계와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감정적 차원이 인지/행동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행동 차원은 감정 차원에 인과적 관

계가 없다고 하여 감정적 차원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이미지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연구결과 신체 이미지는 자각적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 신체 이미지 특성들은 다양한 의복 태도 변인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 3. 외모관리행동

외모란 타인 지각 시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특성으로 체격, 얼굴형 등을 포함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외모는 개인의 수만큼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외모의 기준을 정하고 이 때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많은 상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이상형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이상형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외모관리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체중관리, 화장, 의복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은 물론이고 성형수술과 같이 보다 강도 높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 미적 이상형에 가까워지려는 이유는 이상형에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으며 현명하고 사교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며 능동적으로 살고 사회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이현옥, 구양숙, 2006)고 하여 이것도 역시 자아개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수경과 고애란(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향상 추구 행동의 결과 이상적 신체에 도달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신체만족도가 증가한 결과 자신감이 향상되면서 생활태도와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현옥과 구양숙(2006)은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외모관리 행동은 타인관계 자신감 얻기, 호감 주기, 결혼조건을 갖추고,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외모관리의 성공은 긍정적 자아와 연결됨을 증명하였다.

## 4.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Hurlock(1973, p. 197)은 외모가 청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며 특히 동료 그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매력을 보이는 수단이라고 그 의미를 언급하였다. 한편 Kaiser(1990, p. 120)는 여성은 남편을 얻기 위한 힘으로 미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사회화 된 반면 남성은 외부 생활에서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성화 되어왔다고 설명하여 남녀 모두 외모관리를 중요시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그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여성성은 미와 연결시켜 많은 기준을 만든 반면 남성은 너무 관심

을 기울이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기준을 세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남녀의 역할 변화에 따라 변하는데 과거와 같이 사회활동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절과 달리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에 서도 그 중요도 인식이 변화되었음에 틀림없다. 그 예로 이전에는 외모가 여성에게만 중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임에 비해 최근 남성에게도 외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꽃미남, 매토로 섹슈얼이니 하는 어휘를 통해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남성들도 자연스럽게 피부관리, 화장행동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별 차이는 존재해서 능력 평가의 단계에서 여대생에게 외모가 학벌과 능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필요조건임에 비해 남자에게는 단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였다(임인숙, 2005). 따라서 여성에게 보다 강도 높은 외모관리 행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남성과는 차이가 있는데서 기인함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여성은 자신이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타인이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므로 여성의 자아개념은 매력에 대한 개념과 연결된다(Lerner, Karabenick, & Stuart, 1973)는 점에서 남녀의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와 연결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하며 결과적으로 외모관리 행동에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외모관리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는데 남자의 경우 체형, 피부관리 같은 일반적 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여학생은 과격한 체중조절과 의복 관리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밝힌다.
- 둘째, 성별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사회적 자아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넷째, 사회적 자아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로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다섯째, 성별로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지에는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1) 사회적 자아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을 진술하는 사회적 자아개념을 묻는 문항은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 척도 중에서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아의 정의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 2) 신체 이미지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Cash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 문항들(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중 신체의 외모와 관련된 하위척도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조선명 외(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 3) 외모관리 행동

자신을 가꾸기 위한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문항은 Lennon & Rudd(1994), 정명선(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수정 보완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외모관리 행동의 경우 각 행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3. 연구대상,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대상은 제천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7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439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41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분포는 성별로 남학생이 177명(42.1%), 여학생이 242명(57.9%)이었으며 학년별로 1학년 113명(26.5%), 2학년 178명(41.7%), 3학년 76명(17.8%), 4학년 52명(12.2%)였다. 전공별로 인문.사회계열 141명(33.0%), 자연계열 125명(29.3%), 예.체능계열이 154명(36.1%)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for 10.1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군집분석, t-test등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신체이미지에 대한 16문항을 요인분석 하였는데 주성분 분석법,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네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70 이상이어서 만족할 만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네 요인은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신체이미지와 체중관심 요인이었는데 이는 고애란과 이수경(1998)의 연구에서 감정적, 인지/행동적 요인으로 나뉜 것과 유사하다. 단지 체중관심 요인이 인지/행동적 요인에서 분리되었고 인지/행동적 요인

이 인지적, 행동적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표 1). 이는 Cash(1990, p. 341)가 신체이미지의 태도적 부분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부분으로 나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 2. 성별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

정원식의 자아개념에서 발췌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사회적 자아 문항은 모두 10개였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7961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의 사회적 자아는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남: 3.61, 여: 3.47, t: 2.84\*\*). 성별로 남학생의 사회적 자아가 유의하게 여학생에 비해서 높았다.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의 구성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먼저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 그리고 외모관리 행동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3).

〈표 1〉 신체이미지의 요인구조

요인 및 문항	요인적재값	고유값	누적변량 및 신뢰도
요인 1(감정적 신체이미지)			
나는 신체적 매력이 있다.	.846		
내 몸은 색시한 매력이 있다.	.817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806	3.48	21.77
옷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776		(.889)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684		
요인 2 (행동적 신체이미지)			
나는 외출 전 몸치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800		
항상 멋있게 보이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770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754	2.36	43.31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727		(.893)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705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621		
요인 3 (체중관심)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871		
나는 살이 찌까봐 늘 걱정이다.	.863	2.47	61.70
절식, 단식으로 체중 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	.821		(.860)
요인 4 (인지적 신체이미지)			
나는 내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다(R).	.822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다(R).	.790	1.62	68.21
			(.604)

〈표 2〉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요인의 상관관계

성별	변인	감정적 신체이미지	행동적 신체이미지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남학생	사회적자아	.462***	.198**	.062	-.039
	감정적신체이미지		.463***	.106	-.128
	행동적신체이미지			.253***	.161*
	체중관심				-.261***
여학생	사회적자아	.379***	.312***	.053	.074
	감정적신체이미지		.342***	-.031	-.078
	행동적신체이미지			.187**	.282***
	체중관심				.001

\*p < .05. \*\*p < .01. \*\*\*p < .001.

〈표 3〉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감정적 신체이미지	행동적 신체이미지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R <sup>2</sup>	D-W
남학생 사회적 자아		.502***	-.055	.024	.034	.228	1.77
VIF		1.35	1.50	1.19	1.21		
여학생 사회적 자아		.319***	.180**	.024	.048	.180	1.86
VIF		1.19	1.33	1.05	1.13		

\* $p < .05$ . \*\* $p < .01$ . \*\*\* $p < .001$ .

분석결과 사회적 자아는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와 상관관이 있었는데 남녀 모두 행동적 이미지보다는 감정적 이미지와 더 높은 상관관을 보여주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사회적 자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모의 긍정적 변화는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Cash & Pruzinsky, 1990, p. 125)는 말과 관련된다. 또한 감정적 이미지는 행동적 이미지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적 이미지는 체중관심과 인지적 이미지와 상관관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특히하게 체중관심은 인지적 신체 이미지와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이 크면 신체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과 의식이 낮아진다는 조선명과 고애란(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체중에 문제가 있으면 외모 자체를 덜 중요시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성은 체중보다 체형에 중요성을 둘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 불만족 시 여성과 달리 다른 요인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다음에는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회귀분석에서 남학생의 감정적 신체이미지, 여학생의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이미지 요인들의 설명력은 남학생에게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정적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와 높은 상관성과 인과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인 수록 사회적 자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관된 두 분석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려 회귀분석 시 나타난 D-W, VIF 값을 검토한 결과 변인 간 자기상관성,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t-test를 실시하였는데 모든 신체이미지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행동 중에서는 머리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차가 있었다(표 4). 신체이미지 중 감정적 신체이미지는 남학생이 높은 반면 나머지 신체이미지는 여학생이 높았으며 외모관리 행동 중 운동을 제외한 모든

행동이 여학생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남학생들이 감정적 신체이미지를 여학생에 비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학생들이 사회적 자아, 감정적 신체이미지가 낮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 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학생의 감정적 신체 이미지가 높다는 사실은 Kaiser(1990, p. 121)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신의 평가에 있어 자율적인 반면 여자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모관리 행동에 여학생이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여자는 타인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사회화되고 남자는 그 반응을 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한다(Kaiser, 1990, p. 121)는 것, 또한 한국 여성이 자기의 신체를 타인의 평가에 근거해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이루려 집착한다(강상현, 2000)는 것과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 남학생들이 운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남자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덕목이 여전히 강함이라는 사실도 생각하게 한다. 이는 또한 여성의 자아개념이 매력과 관련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이나 효율성과 연계된다(Lerner, Karabenick, & Stuart, 1973)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성별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변인	남학생	여학생	t	
신체 이미지	감정적	3.10	2.81	3.75***
	행동적	3.46	3.62	-2.38***
	체중관심	2.77	3.46	-6.31***
	인지적	3.50	3.79	-3.71***
외모 관리 행동	화장	2.32	4.17	-20.48***
	운동(요가, 헬스 등)	4.62	4.22	5.94***
	정기적 피부관리	3.82	4.06	-2.98***
	다이어트	3.38	4.16	-7.28***
	의복	4.07	4.44	-4.76***
	머리관리	4.24	4.31	-.97
	패션잡지 구독	3.09	3.44	-3.21***
	성형수술	2.03	2.84	-7.23***
	액세서리 착용	3.31	4.17	-9.5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사회적 자아 집단별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변인	집단	남		t	여		t
		사회적자아 낮은집단	사회적자아 높은집단		사회적자아 낮은집단	사회적자아 높은집단	
신체 이미지	감정적	2.72	3.41	-5.57***	2.61	3.04	-5.04***
	행동적	3.33	3.57	-2.27*	3.46	3.80	-4.22***
	체중관심	2.73	2.80	-.37	3.38	3.51	-1.24
	인지적	3.41	3.59	-1.27	3.68	3.91	-2.54*
외모 관리	화장	2.41	2.22	1.18	4.02	4.35	-3.34***
	운동	4.46	4.76	-3.35***	4.12	4.34	-2.34*
	정기 피부관리	3.67	3.95	-2.17*	3.99	4.13	-1.43
	다이어트	3.37	3.40	-.16	4.08	4.24	-1.30
	의복	3.90	4.22	-2.41*	4.35	4.54	-2.13*
	머리관리	4.06	4.39	-2.55*	4.22	4.42	-2.39*
	패션잡지구독	3.09	3.11	-.11	3.44	3.45	-.05
	성형수술	2.12	1.96	.95	2.75	2.94	-1.26
	액세서리착용	3.20	3.41	-1.29	4.12	4.23	-1.09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사회적 자아집단별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다음에는 사회적 자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성별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1집단은 모든 문항에 대해 낮은 응답을 보여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총 212명, 남: 81명, 여: 131명)이라 하였고 2집단은 높은 응답을 하여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총 209명, 남: 95명, 여: 113명)이라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집단별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t-test를 실시하였다(표 5).

남학생은 사회적 자아집단 간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에 유의차가 있었고 외모관리 행동 중 운동, 의복, 머리관리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집단 간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신체이미지에 유의차가 나타났고 화장, 운동, 의복, 머리관리 등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모든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이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 외모관리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집단 간 인지적 자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지가 여학생의 사회적 자아와 더 연관된 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 4. 사회적 자아집단 별 성별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아집단에 따라 성별로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7).

먼저 감정적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가 낮은 남학생의 성형수술, 높은 남학생의 성형수술에 각각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아가 높은 여학생의 정기적 피부 관리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신체이미지는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학생의 의복, 머리관리, 패션잡지구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의 화장, 성형수술, 액세서리 착용에까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은 다이어트와 운동,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의 정기적 피부관리, 성형수술을 제외한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심은 남학생의 다이어트와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의 성형수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학생은 운동과 다이어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지적 신체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가 낮은 남학생의 의복과 머리관리, 액세서리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에게서는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의 성형수술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집단의 머리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사회적 자아 집단 구분 없이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컸다는 사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체중관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성형수술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가 흥미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은 감정적 신체 이미지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할 때 사회적 자아가 긍정적일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에서 행동적 신체이미지가 성형수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은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에서 행동적 신체이미지가 성형수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사회적

〈표 6〉 사회적 자아집단별 남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집단	변인	감정적 신체이미지	행동적 신체이미지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R <sup>2</sup>
사회적 자아 낮은 집단	다이어트	-.17	-.07	.56***	-.08	.38
	의복	.11	.33**	-.05	.33**	.29
	머리관리	-.00	.31**	-.01	.45***	.35
	패션잡지구독	.05	.38**	.18	.01	.22
	성형수술	.26*	.03	.27*	.15	.12
	엑세서리착용	.19	.19	.16	.29*	.18
사회적 자아 높은 집단	화장	-.26*	.32*	.05	-.07	.10
	다이어트	-.09	.11	.67***	.12	.48
	의복	.01	.37**	.12	.03	.19
	머리관리	-.01	.31*	.03	.17	.14
	패션잡지구독	-.07	.51***	.07	.00	.26
	성형수술	-.27*	.40***	.19	.06	.21
엑세서리착용	-.13	.47***	-.16	.03	.18	

\*p < .05. \*\*p < .01. \*\*\*p < .001.

〈표 7〉 사회적 자아집단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집단	변인	감정적 신체이미지	행동적 신체이미지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R <sup>2</sup>
사회적 자아 낮은 집단	화장	-.09	.43***	-.02	.05	.19
	운동	-.09	.09	.22*	.08	.08
	정기적 피부관리	-.05	.31***	.08	-.06	.09
	다이어트	-.13	.01	.58***	-.02	.35
	의복	-.07	.36***	.03	.17	.19
	머리관리	-.12	.36***	.05	.01	.13
	패션잡지구독	-.19	.41***	.08	-.10	.16
	성형수술	-.01	.30**	.15	-.22*	.14
엑세서리착용	.01	.41***	.03	.03	.17	
사회적 자아 높은 집단	화장	-.08	.37***	.15	-.01	.17
	운동	.09	-.01	.36***	-.12	.14
	정기적 피부관리	.25*	.13	.11	.06	.12
	다이어트	-.14	-.07	.65***	-.02	.46
	의복	.10	.40***	.14	.12	.28
	머리관리	.10	.32**	.13	.18*	.23
	패션잡지구독	-.16	.40***	.01	.00	.15
	엑세서리착용	.02	.31**	.17	.10	.18

\*p < .05. \*\*p < .01. \*\*\*p < .001.

자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Lennon & Rudd (1994)가 여성의 경우 자아개념이 낮을 때 단식이나 성형수술 등 외모변화를 위해 고통스러운 절차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5. 성별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로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아는 남학생의 운동, 의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의 운동과 다이어트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신체이미지는 남녀 모두에게 다이어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행동적 이미지는 남녀 모두에게 운동과 다이어트, 남학생의 정기적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중관심은 다이어트, 성형수술, 여학생의 운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지적 이미지는 의복과 남학생의 정기적 피부관리, 머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다이어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모관리 행동 중 운동을 볼 때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사회적 자아를 향상시키는 도구인 반면 여학생들의 운동은 체중관리 수단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남학생에게서만 의복에 사회적 자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이 대



〈표 8〉성별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성별	종속변인	사회적 자아	감정적 신체이미지	행동적 신체이미지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R <sup>2</sup>
남	화장	-.10	-.05	.26**	.08	-.08	.08
	운동	.28***	-.07	.03	-.05	.12	.08
	정기적 피부관리	.05	.03	.14	.13	.18*	.09
	다이어트	.08	-.16*	.03	.64***	.04	.41
	의복	.20*	.00	.36***	.02	.17*	.25
	머리관리	.14	-.03	.31***	-.02	.31***	.25
	패션잡지 구독	-.05	-.02	.46***	.11	-.01	.23
	성형수술	-.12	-.02	.24**	.20*	.06	.12
	엑세서리 착용	.06	-.02	.36***	-.05	.11	.16
여	화장	.10	-.10	.41***	.04	.05	.20
	운동	.15*	-.05	.05	.26***	.02	.10
	정기적 피부관리	.01	.07	.23***	.07	.01	.09
	다이어트	.16**	-.16**	-.05	.61***	-.01	.41
	의복	.11	-.05	.37***	.05	.16*	.23
	머리관리	.09	-.03	.34***	.08	.10	.18
	패션잡지 구독	-.04	-.12	.41***	.05	-.06	.14
	성형수술	.03	.02	.23**	.13*	-.04	.09
	엑세서리 착용	-.01	.00	.37***	.08	.06	.17

\*p < .05, \*\*p < .01, \*\*\*p < .001.

인관계 시 의복의 의미를 보다 중요시한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고, 남녀 간의 차이까지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이미지는 감정적, 행동적, 체중관심, 인지적 신체이미지 등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의 상관관계는 남녀 모두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행동적 이미지보다 감정적 이미지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감정적 이미지는 행동적 이미지와 상관이 있고 행동적 이미지는 체중관심, 인지적 이미지와 상관이 있었다.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감정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감정적, 행동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성별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감정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중 운동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나머지 변인은 여학생이 더 활발했다. 외모관리 행동 중 머리관리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행동이었다.

넷째, 사회적 자아 집단을 군집분석 하여 성별로 이들이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 운동, 의복, 정기적 피부관리, 머

리관리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신체이미지, 화장, 운동, 의복, 머리관리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에서 활발했다.

다섯째, 사회적 자아 집단에 따라 성별로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성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집단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행동적 신체이미지가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별로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자아는 남학생의 운동, 의복에 여학생의 운동, 다이어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 이미지 요인 중에서는 행동적 신체이미지 요인이 비교적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체이미지는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감정적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대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학생의 경우 행동적 신체이미지가 사회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일 수록 사회적 자아도 긍정적임을 알게 하였다. 남녀의 외모에 대한 미의 기준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모가 사회생활이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었으며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체의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지각한 반면, 여학생은 사회생활을 위해 외모관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적극적이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의 외모관리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동적 신체이미지였다.

또한 사회적 자아 집단별로 성별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한 반응도 흥미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자아가 낮은 집단에서 감정적 신체이미지가 성형수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아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자아가 긍정적일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외모를 비교하며 성형수술을 사회적 자아 향상 수단으로 적극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남녀 차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외모관리 행동 중 운동에 대해서도 남녀가 다른 의미를 부여함을 알 수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운동을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물리적 신체 만족을 위해 운동하지만 여학생은 그 보다는 외모와 관련된 체중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남 녀 모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좋은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신체적 이상형은 날씬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아, 신체이미지 변인의 설명력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실은 체형관리가 외모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아 증진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외모관리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스스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여 많은 외모관리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아를 향상시키는데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아형성 과정 상 순기능도 있겠으나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여성의 판단 기준에서 외적인 측면에 두는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자아의 관련성,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이 제천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이었으므로 이를 모든 대학생 집단에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강상현(2000).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승희, 이명희(1993). 성인남자의 의복구매 동기와 자아개념과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81-192.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이수경 (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류은정, 김영희(2008). 남자 대학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과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46(1), 63-72.
- 성연신(1997). 소비자 광고 속의 신체 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31-62.
- 신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경빈, 유태순(2006). Body Piercer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개념, 자아강도에 따른 신체장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5), 537-544.
- 윤진(1993).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출판사.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83-395.
- 이수경, 고애란(2006). 외모향상추구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59-70.
- 이윤정(2004). 신체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7), 974-982.
- 이현옥, 구양숙(2006).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113-122.
-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수위와 외모 불안지대. **한국사회학**, 39(6), 87-118.
- 정명선(2003). 성인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165-180.
-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법 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 황진숙, 김윤희(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 Cash, T. 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 assessment and treatment*. NY : Pergamon Press.
- Cash, T.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s -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The Guilford Press.
- Dworkin, S. H., & Kerr, B. A.(1987). Comparison on interventions for women experiencing body image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36-140.
- Hall, C. S., & Lindzey, G.(1970).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14th ed.*, NY: McGraw-Hill.
-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Publishing Co.
- Lennon, S., & Rudd, N.(1994).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 84-117.
- Lerner, R. M., Karabenick, S. A., & Stuart, J. L.(1973). Relations among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attitudes and self-concept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85, 119-129.
- Richards, M. H., Boxer, A., Peter, A. C., & Albrecht, R.(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Safire, W.(2000). On language. *New York Times Magazine*, 28, March, 4-5.
- Secord, P. F., &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Thompson, J. K.(1990). *Body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Y : Pergamon press.

접 수 일 : 2009년 3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8일